

북한 아동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

마성은(인하대학교)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북한 아동문학 연구 양상을 검토하고 정리했다. 지금까지의 북한 아동문학 연구는 재북·월북 문인 및 그들의 작품에 관한 연구, 장르별 양상에 관한 연구, 시대별·테마별 양상에 관한 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 아동문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한국 사회에 이미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연구자들 역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은 대다수의 독자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북한 아동문학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북한 아동문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척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북한 아동문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재복과 이재철은 남과 북이 치열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철은 그동안 냉전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아 왔으나, 통리아동문학을 준비하며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관한 그의 제안은 앞으로 더욱 폭넓게 논의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 아동문학, 북한 아동문학 연구, 북한 아동문학 연구방법론, 통리아동문학, 냉전 이데올로기

1.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북한 아동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랫동안 한국 문학 전공자들은 아동문학을 문학 연구 영역 바깥의 것으로 인식해왔다. 아동문학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¹⁾ 북한 문학 연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문학사 서술에서 북한 문학은 원천 배제되었으며, 심지어 외국 문학으로 취급되기도 한다.²⁾ 아동문학과 북한 문학이 모두 한국 문학 연구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왔다는 현실을 돌이켜 볼 때, 북한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동문학과 북한 문학이 모두 한국 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야라는 점을 인지한다면 북한 아동문학 연구 역시 결코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남북통일이 혹은 남북연합이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의 성인들보다는 어린이들이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시대의 주역 중 한 축을 형성할 북한의 어린이들이 어떠한 아동문학 작품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성인들은 어떠한 아동문학 작품을 접하며 성장했는지 연구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2000년은 민족사 서술에서 매우 중요한

1) 원종찬, “아동과 문학: 아동문학,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아동문학의 쟁점』(파주: 창비, 2010) 참조.

2) 유임하·오창은·김성수, “북한문학사의 쟁점,”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새 민족문학사 강좌 2』(파주: 창비, 2009) 참조.

해로 기록될 것이다. 바로 2000년(북한식으로는 주체89년) 6월 15일, 역사적인 6·15 남북(북남)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지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은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북한 관련 연구 역시 활발해졌다. 북한 아동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2000년 이후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에도 선우휘³⁾·김대행⁴⁾·유창근⁵⁾·이재철⁶⁾·김용희⁷⁾ 등이 북한 아동문학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연구 성과는 2000년 이후,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이렇듯 북한 아동문학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그나마 존재하는 연구 성과도 대부분 소논문이며, 학위논문은 한 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아동문학을 연구해 논문을 발표한 학자들이 계속해서 북한 아동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드물다. 북한 아동문학에 관한 관심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 아동문학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단행본은 아직 한 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아동문학 전문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북한 아동문학 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한 뒤에

-
- 3) 선우휘, “북한의 아동문학,” 『북한 문학: 북한 주민의 정서생활에 관한 연구』(국토통일원, 1978).
 - 4)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서울: 문학과 비평사, 1990).
 - 5) 유창근, “남북아동 언어의 이질화,” 『아동문학평론』, 제13호(1988).
 - 6) 이재철, “북한 아동문학 연구,” 『아동문학평론』, 제23호(1998); 이재철, “북한 아동문학 연구,” 『국문학논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제16호(1999).
 - 7) 김용희, “북한 아동시가문학의 고찰,” 『한국아동문학』, 제1집(1992).

기존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상당수의 기존 연구가 북한 아동문학에 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편견이 북한 아동문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척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해왔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덧붙여 앞으로의 북한 아동문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북한 아동문학 연구자가 가져야 할 시각과 태도에 관해서도 소략하게나마 논하도록 하겠다.

2. 북한 아동문학 연구 성과 검토

1) 재북·월북 문인 및 그들의 작품에 관한 연구

북한 아동문학 연구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재북·월북 문인 및 그들의 작품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재북’과 ‘월북’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북·월북 문인은 일제 강점기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으나, 분단 이후 북한에서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한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문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선 재북 문인은 분단 이전부터 이북에서 살고 있었던 문인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주로 분단 이전에 이북에서 태어난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월북 문인은 분단 이전에는 이북에서 살고 있지 않았으나 분단 이후에 북한을 택해 38선을 건너간 문인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를테면 백석(白石, 1912~1996)은 재북 문인, 윤복진(尹福鎭, 1907~1991)은 월북 문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 아동문학가 가운데 한국 연구자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백석이다. 아동문학 활동과 관련된 그의 논문은 4편⁸⁾인데, 다

큰 북한 아동문학가들을 개별적 연구 대상으로 다룬 논문이 각 1편씩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백석은 한국 연구자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백석이 한국 연구자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국에서 백석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최고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매우 비중 있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무엇보다도 그가 북한에서 창작한 동화시에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 한국에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출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가 북한에서 창작한 동화시는 한국에서도 출간되어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백석에 관한 연구는 그의 번역 작업·아동문학 평론·동화시 창작에 관한 연구로 모아지는데, 이 가운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재용의 논의이다. 김재용은 “해방 이후 백석의 활동은 평양 시절과 삼수 시절로 구분할 수 있다”⁹⁾며 “삼수 시절의 창작이 평양 시절에 비해 양적으로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작품 경향 또한 내발적인 것과 외삽적인 것의 혼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층 문제적”¹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품에서 내발적인 것과 외삽적인 것의 혼재가 이루어진 까닭으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하나는 근대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백석이 “해체되어가는 농촌 공동체의 끝자락에서

8) 강정화, “해방을 전후로 한 백석 시의 이행 양상 연구: 백석의 번역문 『아동문학론 초』와 동화시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3호(2011); 김재용, “백석 문학 연구: 1959~1962년 삼수 시절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4권 1호(2011); 김제곤, “백석의 아동문학 연구,” 『동화와 번역』, 제14호(2007); 장성유, “백석(白石)의 아동문학 사상에 대한 고찰: 북한 『문학신문』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7호(2009).

9) 김재용, “백석 문학 연구: 1959~1962년 삼수 시절을 중심으로,” 120쪽.

10) 위의 글, 121쪽.

그(공동체-인용자) 잔재를 붙잡아 이를 통해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고자 했던 것”¹¹⁾이며, 다른 하나는 “당시 당의 정책을 문학으로 옮겨야 하는 과업을 외부로부터 받고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었다”¹²⁾는 것이다.

월북 문인 가운데 주목을 받은 이는 윤복진이다. 원종찬은 북한의 자료를 통해 월북 이후의 공란을 채우면서 윤복진의 삶과 문학 전체를 재구성했다. 원종찬은 “동어반복일 수밖에 없는 작품 분석은 최소한으로 해서 대표적인 사례만 살펴볼 것이며, 그(윤복진-인용자)의 삶과 문학을 둘러싼 일제시대와 분단시대 그리고 남한과 북한 아동문학의 상호관계가 드러나도록 하는 데에 좀 더 역점을 두고자 한다”¹³⁾고 밝히고 있다. 원종찬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도 ‘기독교’와 ‘탈시골뜨기’는 윤복진의 삶과 문학을 추동한 주된 요인이었다”며 “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숨은 동인(動因)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숭배’와 ‘근대화 예찬’이라는 맹목의 병통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¹⁴⁾ 그리고 “오늘날 백석의 『집계네 네 형제』는 남한에서 여러 판으로 거듭 출간되어 아이들에게 환영받는다. 그에 비해 윤복진의 『시내물』은 출간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시인의 몫인 것”¹⁵⁾이라고 평가한다.

11) 위의 글, 138쪽.

12) 위의 글, 139쪽.

13) 원종찬, “북한의 윤복진 동시,”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163쪽.

14) 위의 글, 192쪽.

15) 위의 글, 193쪽.

2) 장르별 양상에 관한 연구

서동수는 개론적 차원에서 북한 아동문학의 장르 인식과 형상화 원리를 설명했다. 그는 결론에서 “1990년대 이후 북한 문학은 뚜렷한 변화의 징후를 드러내는데, 바로 소재와 주제의 유연성”이라며 “계속된 외적 충격은 더 이상 북한 사회로 하여금 폐쇄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기에 개방에 대한 면역성의 방법으로 문학에도 경직성에서 탈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⁶⁾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뒤이은 “…… 동화의 형상화 원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상기법이나 과학적 내용의 강조가 그것인데, 이 역시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탱해나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부동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수령 형상화와 수령 닮기가 그것”¹⁷⁾이라는 서술과 모순된다. 1990년대 이후 북한 문학에서 일정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1990년대 이후 북한 문학의 일정한 변화는 김정일의 『주체문학론』¹⁸⁾에 근거하는데, 이는 ‘경직성에서 탈피하는 경향’이라기보다는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구축한 뒤 체제 유지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주원¹⁹⁾은 아동문학에서 서정 장르의 하위 구분과 용어 사용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한국과 북한의 아동문학 서정 장르의 분류 체계를

16) 서동수, “북한 아동문학의 장르 인식과 형상화 원리,” 『동화와 번역』, 제9호(2005), 111쪽.

17) 위의 글, 111쪽.

18)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9) 선주원, “아동문학 서정 장르의 구분과 용어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7호(2009).

살펴보았다. 그는 장르 체계와 정치 체계, 나아가 이데올로기 체계와
의 관련성을 밝혀내고자 했으나 북한의 아동문학이 이데올로기 체계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 못했다. 특히 그는 한국 아동문학의 장르 체계가 정치 체계, 나아가
이데올로기 체계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사례만을 간략하게 거론하는 정도로 장르
체계와 정치 체계, 나아가 이데올로기 체계와의 관련성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개별 장르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양훈도²⁰⁾·정혜원²¹⁾·최윤정²²⁾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최윤정의 연구는 북한 아동문학을 주
제로 한 유일한 학위논문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최윤정은
1980년대부터 2003년까지 『아동문학』에 발표된 아동시가 및 입수 가
능한 범위에 있는 북한의 동요, 동시집을 대상으로 개론적 차원에서
북한 아동시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북한 아
동문학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2000년 이후이지만 대부분의 연구 성과
는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나왔다. 최윤정의 연구는 북한 아동
문학에 관한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아동
문학을 주제로 한 최초의 학위논문이라는 점에서 선구적인 성격을 갖
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의에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먼저 『아동
문학』에 발표된 아동시가를 검토하는 데 1980년대부터 2003년까지만
을 연구 범위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비록 당시에는 1980년대 이전의
『아동문학』을 입수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일본

20) 양훈도,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 고찰,” 『현대북한연구』, 제14권 3호(2011).

21) 정혜원, “북한 동화의 환상성 연구,” 『동화와 번역』, 제17호(2009).

22) 최윤정, “북한 아동시가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등에서 자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최윤정이 검토한 북한의 동요, 동시집이 7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3) 시대별·테마별 양상에 관한 연구

시대별 연구에는 선안나²³⁾·정홍섭²⁴⁾·최윤정²⁵⁾ 등의 연구가 있다. 시대별 연구의 장점으로는 연구 범위로 설정한 시대에 북한 아동문학이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소논문 한 편에서 특정 시대 북한 아동문학의 양상을 살피는 작업은 아무래도 개론적 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 노릇이다. 시대별 연구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 분량 이상의 지면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선안나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북한 문학이 가장 활기를 띠었던 시대가 1945년 8·15 민족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당시의 아동문학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안나의 연구에도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선안나는 1954년부터 1959년까지 발행된 『아동문학』을 검토 대상으로 설정했는데 여기에는 1950~1953년까지 발행된 『아동문학』에 관한 검토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 입수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아동문학』이 1954년 1월호부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안나의 연구 범위 설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아직 한국에서 확보하지 못한 북한 아동문학 자료를 수집·정리하

23) 선안나, “1950년대 북한 아동문학의 현황(1),” 『동화와 번역』, 제15호(2008).

24) 정홍섭, “전후 북한의 아동문학론,” 『한중인문학연구』, 제14호(2005).

25) 최윤정, “1990년대 이후 북한 아동문학의 흐름,” 『동화와 번역』, 제17호(2009).

는 것은 모든 북한 아동문학 연구자들의 1차 과제이다.

테마별 연구에는 마성은²⁶⁾·원종찬²⁷⁾·이순욱²⁸⁾·한정호²⁹⁾ 등의 연구가 있다. 테마별 연구의 장점으로는 연구 범위의 폭을 좁혀 특정한 테마에 집중함으로써 북한 아동문학에 깊숙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마성은은 “리금철의 과학환상소설에 관한 고찰: 『아동문학』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에서 1990년대 이후 북한 문학의 대표적인 SF 작가인 리금철의 아동문학 작품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이른바 선군시대 이후 북한 아동문학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과학환상소설의 양상을 검토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리금철의 과학환상소설이 1990년대 이전 북한 아동문학의 과학환상소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1950년대 조선 『아동문학』과 동아시아적 감각: 작품 속에 나타난 중국인상을 중심으로”는 북한 아동문학을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검토한 최초의 논의라는 의의가 있지만 선안나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1950~1953년까지 발행된 『아동문학』에 관한 검토가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원종찬의 연구는 북한문단 성립기에 문단 정비 과정의 첫 판본이었던 ‘『응향』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아동문학 분야에서도 있었음을 밝

26) 마성은, “리금철의 과학환상소설에 관한 고찰: 『아동문학』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6호(2010); 마성은, “1950년대 조선 『아동문학』과 동아시아적 감각: 작품 속에 나타난 중국인상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8호(2011).

27) 원종찬, “북한 아동문단 성립기의 ‘아동문화사 사건,’” 『동화와 번역』, 제20호(2010).

28) 이순욱, “4월혁명과 북한 아동문학: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6호(2007).

29) 한정호, “북한 아동문학에 나타난 경자년 마산의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1호(2007).

했다. 원종찬은 그 사건을 『응향』 사건'에 상응해 '아동문화사 사건'이라 명명했다. 원종찬의 연구는 북한 아동문학 성립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동문화사 사건'이라는 명명은 수정해야 한다. 원종찬은 그가 '아동문화사 사건'이라 명명한 사건을 촉발한 『아동문학』 창간호(1947.7)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문학』 창간호가 '아동문화사'에서 발간되었다는 이원우의 회고에 의거해 그 사건을 '아동문화사 사건'이라 명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동문학』 창간호는 '아동문화사'가 아니라 '어린이신문사'에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문화사 사건'이라는 명명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순옥과 한정호는 아동문학 작품집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를 통해 한국의 4월혁명이 북한 아동문학에서 그려지고 있는 양상을 각기 분석했다. 분단 이후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4월혁명이 북한 아동문학에서 그려지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임에 분명하다. 이와 유사한 테마의 글에는 이재철의 “임수경 방북과 북한 『아동문학』지”가 있다. 이재철의 글은 『아동문학평론』 제28호에 수록된 것으로서 연구 논문은 아니고 자료 소개 형태의 글이지만 임수경 방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북한 『아동문학』에서 다루어지는 양상을 정리한 글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의를 갖는다.

3. 통일아동문학의 모색

북한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까닭은

아동문학과 북한 문학이 모두 한국 문학 연구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상술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 문학 가운데에서도 아동문학 분야는 유독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북한 문학 연구 전반을 돌이켜 보면 주목을 요하는 연구 성과가 이미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다. 북한 문학 연구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단행본으로 출간된 연구서도 여럿이다. 그렇다면 북한 아동문학 연구는 왜 유독 홀대받아온 것일까?

2003년에는 북한 동화 20편이 3권의 선집으로 한국에 출간된 사례가 있었다. 각 권마다 표제작의 제목을 책 제목으로 삼았으나, 선집 전체에 공통된 부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 선집의 부제목은 ‘북쪽에서도 아름다운 동화를 읽고 있었네’였다. 북한 측에서는 ‘북쪽에서도 아름다운 동화를 읽고 있었네’라는 말 가운데 ‘도’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북쪽에서는 좋은 동화를 읽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독자들에게 북한의 동화가 그리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동화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달았다”고 설명해 북쪽의 이해를 얻었다고 하지만 필시 북한 측에서만 선집의 부제에서 당혹감을 느낀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 측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쪽에서도 아름다운 동화를 읽고 있었네’라는 말은 북쪽에서는 좋은 동화를 읽고 있지 않다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좋은 동화를 읽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북한 아동문학에 관한 대표적인 편견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편견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 퍼져 있었다. 한국에서 북한 아동문학을 다룬 최초의 글은 선우휘의 “북한의 아동문학”이다. 북한 아동문학에 관한 선우휘의 평가에는 냉전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북한 아동문학은 오로지 독자들이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교육하는 선전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동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공주의적 편견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통념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선우희의 글이 수록된 『북한 문학: 북한 주민의 정서생활에 관한 연구』가 1978년 군사독재정권 당시 국토통일원에서 출간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선우희의 글에 냉전적 시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냉전적 시각의 그림자가 6·15 남북공동선언을 거친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북한 아동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선우희의 글이 발표된 1978년처럼 반공주의적 편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분단체제의 고착으로 형성된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윤정은 1990년대 이후 북한 아동문학의 일정한 변화가 “어린이를 ‘공산주의 후비대(後備隊)’로만 인식하던 태도에서 ‘아동 고유의 특성’을 부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미세하지만 이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단단히 무장된 북한 아동문학에 내부적으로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다. 이어서 “이 같은 공통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남북한 아동문학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일 문학의 진로를 모색하고 그 방향을 살펴보는 연구에 있어서도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는 뜻을 밝힌다.³⁰⁾ 최윤정이 볼 때 북한에서는 ‘어린이를 ‘공산주의 후비대’로만 인식’해왔으며 ‘공산

30) 최윤정, “북한 아동시가 연구,” 105쪽.

주의 사상으로 단단히 무장된 북한 아동문학에 내부적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변화이다. 또한 그러한 균열이 ‘통일 문학의 진로를 모색’하는 실마리가 된다. 그가 생각하는 통일은 북한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최윤정의 사고방식이 냉전시대의 반공주의적 시각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윤정은 선우희의 글이 “시대적인 제약과 함께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연구였던 만큼 철저히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었다”³¹⁾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냉전시대의 반공주의적 시각과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상술한 바 있듯이 분단체제의 고착은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무의식에 파고들게 만들었다. 최윤정의 시각은 그러한 무의식이 표출된 사례로 보인다.

냉전적 시각의 그림자가 성인들에게만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동화를 묶어 선집으로 펴낸 바 있는 이재복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한다.

가끔 북한동화집을 읽은 아이들이 내게 편지를 보낸다. 그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 재미있는데, 정말 이게 북한의 작가들이 쓴 거냐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 작가들은 이렇게 재미있는 동화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아이들도 이런 재미있는 동화를 읽고 자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³²⁾

31) 위의 글, 7쪽.

32) 이재복, “반쪽이 또 다른 반쪽에게: 북한동화 이야기,” 『우리 동화 바로 읽기』 (서울: 소년한길, 1995), 235쪽.

이처럼 북한 아동문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한국 사회에 이미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은 대다수의 독자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북한 아동문학에 대하여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또한 연구자들이 북한 아동문학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 까닭에 북한 문학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된 이후로도 약 20년이 지나서야 북한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북한 아동문학 연구는 동심을 파괴하는 북한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북한체제 내부에서 감지되는 균열을 포착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앞으로의 북한 아동문학 연구는 한국 사회에 이미 깊숙이 뿌리내린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이 지금까지 부재했던 것도 아니다.

이재복은 북한 아동문학을 살펴보기에 앞서 “될 수 있으면 북한의 아동문학에서 남한의 작가들이 꼭 참고로 알아두었으면 하는 좋은 점을 보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북한의 아동문학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안이 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 남한의 작품들을 같이 비교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³³⁾는 뜻을 밝혔는데, 북한 아동문학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관점은 바로 이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 아동문학 연구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를 축적한 이재철 역시 북한 아동문학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포용적인 자세를 강조한다. 그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50주년을 앞둔 지난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서명한 6·15 선언, 즉 남북공동선

33) 위의 글, 223쪽.

언은 참으로 남북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놀라운 민족적 쾌거였다”고 밝히며, “대립과 반목으로 일관하던 지난 반세기를 뛰어넘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통일아동문학을 준비하며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³⁴⁾

1) 자기반성의 논리를 추구해야 된다.

…… 남쪽의 반공문화적 시각이나 북쪽의 반동문화적 시각은 이제 어떤 방식이든 청산되어야 한다. …… 그동안 우리는 구라파를 배움으로써 근대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었고 북쪽은 ‘주체의 확립’이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기준으로 접근하지 말고 상대의 존재를 그 자체로 인정해주어야 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반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2) 사실존중의 논리를 좇아야³⁵⁾ 한다.

…… 흑백이분법적(黑白二分法的) 사고를 견지한다면 결코 아동문학을 통한 남북통일은 이룩될 수 없다.

3) 민족 문학의 논리를 추구해야 한다.

① 민족 동질성 회복이 될 수 있는 글을 써야 된다.

…… 전통문화가 점차 기계문명물질문명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의 지난날과 세시풍속 등을 작품화해서 오늘의 아파트촌

34) 이재철, “통일시대의 아동문학,” 『남북아동문학연구』(서울: 박이정, 2007), 129쪽.

35) 원문에는 ‘쫓아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쫓아야’의 오키이기 때문에 바로잡았다.

어린이는 물론 농촌의 어린이에게도 읽혀야 되는 것이다.

② 환경존중생명존중의 사상을 담아야 한다.

…… 자연과 인간, 동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생명에 대한 외경(畏敬)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상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③ 경제논리에 짓눌린 정신우위의 사상을 복돋아야 한다.

…… 이 시대에 사는 문학인은 지나온 세월이 안고 있는 역사 의식에 소홀히 말아야 되겠지만 현실에 산재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잃어서는 안 된다. 통일의 길은 멀고도 가깝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출발점인 것이다.

…… 우선 남쪽은 국가보안법을, 북쪽은 노동당 규약 등에 명시된 대남 무력점령 전략이 들어 있는 법조항부터 수정해야 한다. 고무찬양죄의 공포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며, ‘특수자료취급인가증’이 없어도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문화적 햇볕정책으로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통일 문학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설플 반공 문학처럼 설익은 남북 동질화문학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내부에서 삭혀서 우리나라 민족 문학을 건설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깊은 인내와 탈바꿈이라는 자기희생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서 있다.³⁶⁾

이재철의 주장을 다소 길게 인용한 까닭은 그동안 냉전 이데올로기

36) 이재철, “통일시대의 아동문학,” 129~132쪽.

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아 온 그의 다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국가보안법을 수정해 “고무찬양죄의 공포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며, ‘특수자료취급인가증’이 없어도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된다”는 이재철의 주장은 통일아동문학을 준비하는 모든 북한 아동문학 연구자들에게 실천적 지침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철이 한국 아동문학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의 제안은 앞으로 더욱 폭넓게 논의되고 실천되어야만 할 것이다.

4 북한 아동문학 연구의 과제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의 북한 아동문학 연구 양상을 검토하고 정리했다. 또한 북한 아동문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한국 사회에 이미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연구자들 역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밝혔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은 대다수의 독자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북한 아동문학에 대하여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북한 아동문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척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북한 아동문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재복과 이재철은 남과 북이 치열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철은 그동안 냉전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아 왔으나 통일아동문학을 준비하며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관한 그의 제안은 앞으로 더욱 폭넓게 논의되고 실천될 필

요가 있다.

덧붙여 앞으로의 북한 아동문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북한 아동문학 연구자가 가져야 할 시각과 태도에 관하여서도 소략하게나마 논하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한국에서 확보하지 못한 북한 아동문학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것은 모든 북한 아동문학 연구자들의 1차 과제이다.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북한 아동문학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과 직접 교류하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당장은 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에 산재해 있는 북한 아동문학 자료를 수집·정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이어받아 좀 더 체계적이고 진전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아동문학을 개론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르별·시대별·테마별로 연구 범위를 좁혀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아동문학 연구로 학위논문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북한 아동문학 연구를 이어갈 북한 아동문학 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아동문학 연구 성과가 단행본 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아동문학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는 북한 아동문학 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할 것이다. 이종석은 “북한 연구의 경우 아직 우리가 채택할 만한 단일한 패러다임이나 모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모델화에 가장 가까운 논의로는 북한의 체제 성격을 두고 사회주의적 조합주의(B. 커밍스), 신전체주의(G. 매킨맥), 유격대국가(와다 하루키) 등의 주장이 있으나 그것도 결국에는 이론들의 불

철저함이나 연구 대상에 대한 실사구시적 입증의 부족으로 명백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⁷⁾ 그는 이어서 “그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연구방법”을 제시하는데, 내재적-비판적 접근·역사상황적 접근·비교분석과 구조적 분석·역사문화론적 분석 및 역사적 분석·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 효과·징후적 분석·전후 상황과 맥락에 대한 유기적 파악·사회적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문헌분석 등이 그것이다.³⁸⁾

이외에도 오세철·폴 매틱(Paul Mattick)·로렌 골드너(Loren Goldner) 등 좌익공산주의자(left communist)들의 ‘국가자본주의론’³⁹⁾이 북한을 파악하는 중요한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으며, 백낙청의 ‘분단체제론’⁴⁰⁾은 분단체제라는 맥락에서 북한 이동문학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최원식의 ‘동아시아론’⁴¹⁾은 북한 이동문학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북한 이동문학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통일문학사를 위한 남북한 문학의 통합 논리를 모색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김성수이다. 그는 “리얼리즘(사실주의)이라는 공통항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이 통합 문학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북한의 분단적 시각을 넘어 통합된 전망으로 우리 민족 문학의 흐름을 가

37)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23~24쪽.

38) 위의 책, 24~34쪽.

39) 오세철 편, 『좌익공산주의』(의왕: 빛나는전망, 2008); 오세철, 『다시, 혁명을 말한다』(의왕: 빛나는전망, 2009).

40)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과주: 창비, 2006); 백낙청,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과주: 창비, 2009); 백낙청, 『2013년 체제 만들기』(과주: 창비, 2012).

41) 최원식,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과주: 창비, 2009).

늘할 경우 문학사에서 주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리얼리즘”이라고 지적했다.⁴²⁾

김성수의 논리는 남북의 일반문학 연구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지만 남북의 아동문학 연구에까지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난점이 적지 않다. 남한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리얼리스트이자 미학적으로 가장 탁월한 성취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권정생의 작품들은 북한 아동문학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자연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대표작 『몽실언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남과 북 모두에 비판적인 시선은 남과 북 양쪽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교류 협력을 통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낮은 단계의 느슨한 통합을 이룬 뒤 점차 정치군사적·문화적 통합으로 가지는 남북공동선언의 원칙이 문학사 통합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⁴³⁾한다면, 남과 북 양쪽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권정생의 작품들이 남과 북 양쪽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원진은 “이북 문학을 연구할 때 부딪히는 난제의 하나가 한국, 북조선, 일본, 중국, 미국, (구)소련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 내의 일본·미국과 북조선 내의 중국·(구)소련의 상호역학 작용을 짝으로 하는 대쌍동학적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⁴⁴⁾

42) 김성수, “통일 문학사를 위한 남북한 문학 통합논리,”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서울: 책세상, 2001), 31쪽.

43) 위의 책, 32쪽.

44) 남원진, “북조선 문학의 연구와 자료의 현황,”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달의 양식』(서울: 경진, 2011), 122쪽.

또한 그는 북한 문학의 양식과 미학적 원리에 관해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그는 “이북 문학은 근대적 인간의 전형이 없는, 고상한 인간(주체형 인간)만이 존재하는 근대 미달 양식”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그렇다고 이북 문학이 근대 문학이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⁴⁵⁾ 다음으로 이북 문학을 규정할 수 있는 미학적 원리를 ‘이야기의 힘’을 통한 ‘감응의 수사학’이라고 규정한다. “이북 문학은 고상한 정신적 풍모를 지닌 김일성과 같은 주체형 인간에 감응하고 몰입하면 상당히 감동적”인데 “이것이 이야기의 힘”으로서, “이북 문학은 이야기의 힘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남성의 서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⁴⁶⁾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달의 양식”이라는 열쇠말로 북한 문학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북한 아동문학 연구에도 크나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런데 연구방법론의 모색에 앞서 북한 아동문학 연구자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비록 제1차 자료(북한 원전 자료)가 불완전하게 공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확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1차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서동만은 “제1차 자료가 불완전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제1차 자료를 단순 가공한 제2차, 제3차 자료가 양적으로 제1차 자료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확한 것이 아니라면 괜히 쓸데없이 장황한 해석을 달기보다 독자에게 간단한 해설 정도로 제1차 자료를 그대로 접하게 하는 편이 상황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⁴⁷⁾ 따라서 북한 아동문학 연구자는 제1차

45)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달의 양식,”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달의 양식』 (서울: 경진, 2011), 472쪽.

46) 위의 글, 473쪽.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해서 제2차, 제3차 자료에 의존해서 연구를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북한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한 인식이다.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주체형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북한을 근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을 주체형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로 파악하는 관점은 일단 북한을 근대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을 근대에 미달하는 전(前)근대적 신(新)왕조체제·전(前)근대적 신정(神政)체제 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들의 인식은 근대를 정상(正常)으로 규정하는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북한은 비정상(非正常)이기 때문에 근대에 미달하는 전근대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근대를 정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서 근대주의의 강박에 갇혀 있는 관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자본주의·제국주의로 점철된 근대를 돌이켜 볼 때, 근대를 정상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근대를 정상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근대를 이상화(理想化)하는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 근대는 마땅히 도래해야 할 이상적 체제가 결코 아니다.

오늘날 북한을 보면, 사회주의 근대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 초기 사회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근대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가까워 보인다. 강성한 혹은 강성함을 추구하는 민족국가·사상적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약육강식의 국제 질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일상의 군대화 등을 볼 때, 북한은 전근대 체제라기보다는 근대라는 악령이 그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경우라고 생각된다.

47) 서동만, “북한 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1990년대 연구 성과와 문제점,” 『북조선 연구』(과주: 창비, 2010), 92쪽.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 아동문학 연구자는 북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분명히 한 뒤에 연구에 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6월 29일 / 수정: 7월 30일 / 채택: 8월 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토통일원 자료과관리국, 『북한 문학: 북한 주민의 정서생활에 관한 연구』(국토통일원, 1978).
-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서울: 문학과 비평사, 1990).
-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서울: 책세상, 2001).
-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서울: 경진, 2011).
-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새 민족문학사 강좌 2』(파주: 창비, 2009).
-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_____, 『흔들리는 분단체제』(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 _____,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파주: 창비, 2006).
- _____,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파주: 창비, 2009).
- _____, 『2013년 체제 만들기』(파주: 창비, 2012).
- 서동만, 『북조선 연구』(파주: 창비, 2010).
- 오세철 편, 『좌익공산주의』(의왕: 빛나는전망, 2008).
- 오세철, 『다시, 혁명을 말한다』(의왕: 빛나는전망, 2009).
- 원종찬, 『한국아동문학의 쟁점』(파주: 창비, 2010).
- 이재복, 『우리 동화 바로 읽기』(서울: 소년한길, 1995).
- 이재철, 『남북아동문학연구』(서울: 박이정, 2007).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최원식,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파주: 창비, 2009).

2. 논문

- 강정화, “해방을 전후로 한 백석 시의 이행 양상 연구: 백석의 번역문 『아동문학론 초』와 동화시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3호(2011).
- 김용희, “북한 아동시가문학의 고찰,” 『한국아동문학』, 제1집(1992).

- 김재용, “백석 문학 연구: 1959~1962년 삼수 시절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4권 1호(2011).
- 김제곤, “백석의 아동문학 연구,” 『동화와 번역』, 제14호(2007).
- 마성은, “리극철의 과학환상소설에 관한 고찰: 『아동문학』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6호(2010).
- _____, “1950년대 조선 『아동문학』과 동아시아적 감각: 작품 속에 나타난 중국인상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8호(2011).
- 서동수, “북한 아동문학의 장르 인식과 형상화 원리,” 『동화와 번역』, 제9호(2005).
- 선안나, “1950년대 북한 아동문학의 현황(1),” 『동화와 번역』, 제15호(2008).
- 선주원, “아동문학 서정 장르의 구분과 용어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7호(2009).
- 양훈도,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 고찰,” 『현대북한연구』, 제14권 3호(2011).
-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 연구,” 『동화와 번역』, 제17호(2009).
- _____, “북한 아동문단 성립기의 ‘아동문화사 사건,’” 『동화와 번역』, 제20호(2010).
- 유창근, “남북아동 언어의 이질화,” 『아동문학평론』, 제13호(1988).
- 이순옥, “4월혁명과 북한 아동문학: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6호(2007).
- 이재철, “북한 아동문학연구,” 『아동문학평론』, 제23호(1998).
- _____, “북한 아동문학연구,” 『국문학논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제16호(1999).
- _____, “통일시대의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제26호(2000).
- _____, “임수경 방북과 북한 『아동문학』지,” 『아동문학평론』, 제28호(2003).
- 장성유, “백석(白石)의 아동문학 사상에 대한 고찰: 북한 『문학신문』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7호(2009).
- 정혜원, “북한 동화의 환상성 연구,” 『동화와 번역』, 제17호(2009).
- 정홍섭, “전후 북한의 아동문학론,” 『한중인문학연구』, 제14호(2005).
- 최윤정, “북한 아동시가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_____, “1990년대 이후 북한 아동문학의 흐름,” 『동화와 번역』, 제17호(2009).
- 한정호, “북한 아동문학에 나타난 경자년 마산의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1호(2007).

Current Status and Tasks of Study on Children's Literature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 Sung-eun(Inha University)

This article arrangement and study of current status of children's literature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hereafter DPRK). Current status of children's literature of DPRK have consists of the study on literati of stay in DPRK or go to DPRK and their works, study on aspects of genres, and study on aspects of periods or themes.

There is deep-rooted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about children's literature of DPRK among Republic of Korea(hereafter ROK), so many researchers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not totally free of that. These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make allergy about children's literature of DPRK in situation to does not know exactly, been working as obstacles to lively progress of study on children's literature of DPRK.

But there is not that the absence of effort for overcome of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about children's literature of DPRK.

Lee, Jae Bok and Ri, Jae Cheol emphasis as it is recognized the other side and inclusive stance for tolerate, on premises intense self-reflection to ROK and DPRK. Especially Ri, Jae Cheol was evaluated does not overcome of the Cold War ideology, however his propositions about the attitude of mind for Unification Children's Literature have to discuss and practice from now on.

Keywords: children's literature of DPRK, study on children's literature of DPRK, a method of study on children's literature, Unification Children's Literature, Cold War ideology